

캐머런 챔프, 흑백 신발로 인종 차별 항의



▲ 캐머런 챔프가 검은색과 흰색 신발을 신고 대회에 참가해 인종 차별 반대 움직임에 동참했다. 사진= Golf Channel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2승의 캐머런 챔프(25·미국)가 신발로 인종 차별 반대 시위에 동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챔프는 전날 일리노이주 올림피아 필드의 올림피아 필드 컨트리클럽(파70·7366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950만 달러) 1라운드에서 양발에 흰색과 검은색 신발을 나눠 신고 경기에 눈길을 끌었다.

챔프는 신발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는 글귀도 적었다.

챔프가 흰색과 검은색 신발을 신고 나온 것은 얼마전 위스콘신주 키노사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이 손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챔프는 PGA투어, 골프채널 등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믿고 변화 되어야 할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며 "많은 운동 선수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변화가 필요하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챔프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것도 고민했다. 하지만 경기에 참가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 고 덧붙였다.

PGA투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종 차별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GA투어는 "지난 여름 인종 차별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포츠는 모두를 통합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MLB 신인왕 후보 급부상



▲ 김광현. 사진=타운뉴스 DB

김광현(32, 세인트루이스)이 메이저리그(MLB)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했다.

'한국스포츠경제'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지난 24일 김광현은 올 시즌 가장 뜨거운 신인 10명 중 6위에 선정했다. 대체는 김광현이 불펜으로 데뷔한 첫 경기에서 세이브를 거둔데 이어 선발로 보직을 옮겨 치른 시카고 컵스와 데뷔전에서 1실점(3.2 이닝) 호투했고, 신시내티전에서 두 번째 등판 만에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첫 승을 따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현재 김광현은 선발로 된 9.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0.93을 기록 중이다.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의 면모를 보인 김광현에 대한 세인트루이스 팀 동료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팀에 헌신하는 김광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면서 김광현의 빠른 투구 템포와 완급조절, 공격적인 투구 내용 등을 높게 평가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세인트루이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김광현은 살인적인 등판 스케줄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인왕 경쟁에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60경기 초단기 레이스에서 두 자리 승수에 평균자책점 2점대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신인왕 타이틀도 노려볼 만하다.

만약 김광현이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쥔다면 코리안백리거 사상 첫 백리극 신인왕이 된다. 앞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이 2013년 LA 다저스 데뷔 시즌 신인왕 투표 4위에 오르며 신인왕에 근접했지만 타이틀을 흘리는 되지 못했다.

김연아 "YOG 부위원장직 수락 고심 중"

'피겨 여왕' 김연아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Youth Olympic Games·YOG)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제안 받고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연아 측 관계자는 이날 "강원 YOG 부위원장직을 제안 받은 것은 사실" 이라면서 "부위원장직 수락 여부나 다음달 창립총회 참석 여부는 고심 중" 이라고 말했다. 그가 부위원장직을 수락한다면 9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행사에서 정식 임명된다.

김연아는 2년 전 평창올림픽 개막식 성화 최종 점화자로 나섰던 것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대외 활동이었다. 그는 2009년 4월 평창올림픽 유치 1



▲ 김연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호 홍보대사로 처음 임명된 뒤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2012년 인스부르크, 2016년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1,2회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잇달아 홍보대사를 지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1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를 통해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을 보존하고 있는 강원도는 IOC 위원 82명 중 79표(반대 2표·기권 1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로서 강원도는 아시아 최초의 동계유스올림픽 개최지가 됐다.

한편 조직위 출범은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연기 가능성도 대두되고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